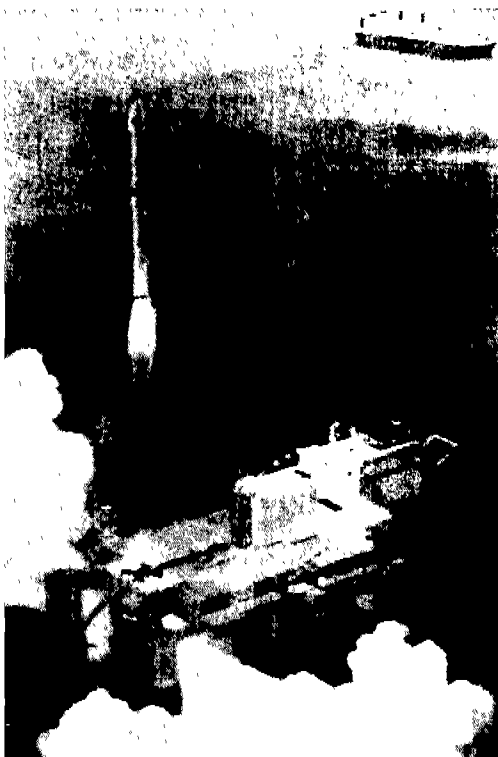


## Sea Launch, 또 다른 고객 확보

미 보잉(Boeing)사가 주도하고 있는 Sea Launch 합작 사업은 우주 발사 사업에서 두 번째 주요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다.

로랄 우주 & 통신의 일부인 Space Systems/Loral사는 Sea Launch 시스템을 98년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5회의 발사를 주문하는 계약에 동의했다. 동사는 아직 계획된 발사체의 유료 허증을 할당하지 않았다

동 계약은 Hughes사가 '95년 최소 10회의 발사를 주문한 이후



Sea Launch가 태평양에서 발사하고 있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 계약은 옵션을 포함하여 10억달러에 달한다.

보잉 커머셜 스페이스사는 러시아의 RSC-에네르기아, 우크라이나의 KB Yuzhnoye, PO Yuzhmash, 그리고 노르웨이의 선박 제조업체인 Kvaerner 그룹과 연합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업체는 2단계 Zenit 부스터를 공급하고 러시아에서는 그 윗단계를 제작하였다.

동 합작사는 캘리포니아의 롱비치에 모항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며, 캘리포니아에서 결합된 로켓과 위성은 하와이 남쪽 태평양의 공해상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석유 시추기를 발사대로 개조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 2개 조사위 발족 SJAC, 우주관련 사업에

일본항공우주공업회(SJAC)는 이사회를 열고 우주관련 사업에 두개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미 구체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신설한 두 우주관련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① 차세대 우주기술 연구 위탁사업조사위원회

국제적으로 우주의 상업이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국제협력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항공우주공업회는 일본소형자동차진흥회의 보조금을 얻어 회원기업이 제안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제안되는 연구과제를 조사 검토하여 지원 대상여부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면밀하고 공정한 조사검토로 제안되는 과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97년 3월까지 3회정도 위원회의를 열어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은 우주관련 각계에서 유명한 석학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우주의 상업이용에 관한 조사위원회

세계의 우주개발동향과 그 이용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제력을 확보하고 이론의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주의

상업이용 방안과 과제를 조사·연구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조사내용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중심이 되고 있는 우주기기의 고성능화, 저가격화, 납기단축 등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미국정부의 정책방향과 진행 상황등을 파악하여 우주개발에 필요한 민생용품을 개발, 활용하고 미국의 조달에 응하기 위한 조사를 행한다.

아울러 우주관련의 미국기업과 국제협력을 위한 체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응방안을 조사하고 정보를 정리한다. 그리하여 일본이 조속히 대응해야할 항목을 추출하여 실행 과제를 선정하며 정책작성에 도움을 준다. 위원은 회원기업과 각계의 전문가 가운데서 선임하여 내년 3월까지 6회 정도 회의를 열어 조사를 추진하고 미국 현지의 실지조사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아리안 5호 9월에 2호기 발사

지난 6월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되어 폭발된 아리안 5의 제1호기를 대신할 아리안 5호 2호기를 오는 9월에 같은 발사장소에서 다시 발사한다고 유럽 우주기구(ESA)가 최근 발표했다. 지난번 1호기의 실패 원인은

전기계통과 소프트웨어의 부조화 때문이었다고 발표했다.

## 월면탐사 계획 일, 2002년 목표로

일본우주사업단(NASDA)과 일본 문부성 우주연구소는 공동으로 2002년을 목표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달 표면 탐사기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NASDA소식통이 발표했다.

발사에 쓰일 로켓은 신형 H-II A 로켓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발사할 달표면 탐사기는 달 주위 궤도에 올려놓을 주위성과 달 표면에 연착륙할 달착륙기, 그리고 이 양자간의 통신을 담당할 릴레이 위성 등 3종의 위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하며 세가지의 총 중량은 18톤으로 한꺼번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의 달 탐사는 정도 10m의 달표면 지도를 만들고 아울러 달의 운동을 관찰하며 달에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는 동시에 달에서 다른 천체를 관측하는데 대한 자료수집등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500억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실현 된다면 미국, 소련에 이어 세번째로 달 표면에 착륙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일

본은 달 표면 이용계획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은 달 주위 선회 궤도를 돌기위한 탐사계획의 실현을 위해 일본 우주연구소는 13kg의 하고로모호와 180kg의 비천호등 2회에 걸친 소형 위성을 발사하여 자료를 얻은 바가 있다.

## 자동 착륙장치 성공 일, 우주왕복선 실험에

21세기 초에 실용화할 예정으로 개발중에 있는 일본의 무인 스페이스 셔틀 HOPE의 소형 실험기 ALFLEX의 자동착륙장치 실험을 호주 남부의 사막지대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기보한바 있는데 동실험에서 장치가 기대한 대로 착륙 작동하여 성공적이었다고 NASAD당국이 공식 발표했다.

실험기는 HOPE본체의 약 3분의 1 규모로 대형헬리콥터에 매어달고 고도 1,500m상공에 올라가 활주로 후방 2.7km공역에서 분리했다. 실험기는 초속 80m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각종 정보를 실험기 내에 실린 컴퓨터가 수신하여 자동으로 제어하여 2,700m를 활주하면서 드렉슈트를 펴면서 착륙. 정지했다고 한다. 실험은 호주에서 두 번 더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